

<http://dx.doi.org/10.17703/JCCT.2023.9.3.551>

JCCT 2023-5-62

협력종합예술활동의 지역 적용 방안 고찰

A Study on the Regional Application of Cooperative Integrated Arts Activities

박 영 주*

Young Joo Park*

요약 본 연구는 서울시의 협력종합예술활동에 대한 성공 전략을 분석하고, 이를 타 지역 공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협력종합예술활동은 학교 교육과정 내 운영함으로써, 예술교육의 보편성을 실천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과 다양성이 확보된 참여형 예술교육활동이다. 따라서 이를 지역 공교육에 적용하기 위해 모든 학생의 참여와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은 물론 지속적인 인적·물적 재원 지원, 다양성이 반영된 예술교육과 결과물 공유를 통한 사회적 환원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협력종합예술활동, 교복입은 예술가, 예술교육, 학교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Abstract The study is to analyze the success strategies of the Cooperative Integrated Arts Activities in Seoul and to explore ways to implement it to the local public school. According to research, Cooperative Integrated Arts Activities fulfill the purpose of providing universal arts education by being implemented in the school curriculum. They are also characterized by activ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and interactive participatory arts education with assured diversity. Therefore, when applying to a local public school, it is necessary to consider factors such as active administrative support, sustainable allocation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customized arts education that engages the all students and reflects their unique characteristics, social distribution through sharing, and continuous monitoring.

Key words : Cooperative Integrated Arts Activities, an artist in school uniform, arts education, school arts education, culture and arts education

1. 서론

2017년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협력종합예술활동 정책(이하, 협중)을 발표하고,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이를 반영하였다. 협중이란 학생들의 미적 감수성, 협력적 인성 등 미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

학교 3년 중 최소 1학기 이상 정규 교육과정 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뮤지컬, 연극, 영화 등 종합 예술활동을 운영하고, 학급 학생들 모두가 종합예술활동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참여하고 발표회를 통해 공유하는 학생 중심 예술교육활동이다[1][2].

협중은 2016년 최초로 시범 운영하였으며, 2017년에는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는 중등학교 중 희망하는 173

*정희원, 경남대학교 음악교육과 조교수(제1저자)
접수일: 2023년 4월 26일, 수정완료일: 2023년 5월 8일
게재확정일: 2023년 5월 12일

Received: April 26, 2023 / Revised: March 8, 2023

Accepted: May 12, 2023

*Corresponding Author: yj9097@kyungnam.ac.kr
Dept. of Music Education, Kyungnam Univ, Korea

교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1]. 이후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을 인정받아 협종 참여 학교를 점진적으로 늘려서[3], 2019년에는 중등학교 외에 초등, 고등, 특수학교로 확대 운영하였다. 2020년에는 서울시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였으며, 2021년에는 서울시내 385개 모든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75개교, 특수학교 5개교로 운영하였다[4][5].

협종의 교육 목적은 첫째, 교육과정과 연계된 학교예술교육과 교과간 융합 교육의 활성화 방안 마련, 둘째, 온·오프라인 참여형 수업을 통한 학생 중심 예술 수업의 혁신, 셋째, 학생의 미래핵심 역량 강화, 넷째, 예술적 감수성 신장을 통한 창의력, 협력적 인성, 자신감 증대를 통한 행복한 학교생활을 구현하는 것이다[5]

협종의 성과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3][6][7]. 김유리는 2017년 1학기에 협종을 실시한 중학교 44곳의 교사 86명과 활동에 참여한 1,386명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협종이 학생 진로 탐색과 생활지도에 긍정적인 효과는 물론, 협종이 진행될수록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 발달을 관찰하였다고 하였다[1]. 유지선과 김소영은 협종을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가지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6]. 또한 한양화는 협종 활동으로 공동 연극 창작 활동이 중학생들의 공동체 역량을 함양할 수 있었다는 것을 사례연구를 통해 제시하였다[7]. 그뿐만 아니라 홍후조 외는 학생과 담당 교사, 그리고 참여 예술 강사를 대상으로 3년 차 접어든 협종 사업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협종의 교육 효과성을 확인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제안하였다[3].

서울시는 5대 중점 사업 중 하나로 협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학교예술교육과 협종은 ‘예술과 함께 생활하고 예술과 함께 성장하는 학생’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예술을 향유하는 학생을 기르는 학교예술교육’이라는 목표 아래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다른 예술교육과 달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교과교사 주도적 학교예술교육인 협종을 통해 학생들은 예술교육 경험을 다양화하고, 예술 활동 지역 협력 시스템을 선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8].

1999년 ‘학교예술교육과 창의성 증진을 위한 국제호소(International Appeal for the Promotion of Art Education and Creativity at School)’를 계기로 우리나라

라도 2010년 정부 주도로 ‘서울 어젠다: 예술교육 발전 목표(Seoul Agenda: Goals for the Department of Arts Education)’를 발표하였고[9], 이는 사회예술교육뿐만 아니라 학교예술교육에도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10]. 이후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질적 향상성, 사회적 가치 확산성의 ‘서울 어젠다’의 3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사회 및 학교예술교육이 빠르게 성장하였다. 김인설 외는 2010년 ‘서울 어젠다’ 이후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의 지속 발전지수를 연구하였고, 연구 결과 ‘서울 어젠다’에서 제시된 목표 중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에 비해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들은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을 위한 정책 개발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11]. UN(United Nations) 총회에서 결의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서 2030년까지 ‘양질의 교육 보장(Quality Education)’이라는 목표를 상정하여 실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12] 학교예술교육에 대한 질적 성장을 야기한 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적용하려는 방안 탐색연구는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협종의 성공 전략을 분석하여 타 지역 공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협력종합예술교육’을 키워드로 RISS에 업로드 된 학술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학교예술교육포털 홈페이지 내 정책 혹은 결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II. 협력종합예술활동의 특징

1. 학교 교육과정 내 운영

우리나라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도 교육청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효율적으로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시·도 교육청은 각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청 단위의 교육 중점을 설정하고, 시·도 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활동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13].

서울시 교육청은 협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2015 개정 「서울특별시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이를 시행령으로 반영하였다[1][2]. 따라서 단위 학교는 협종을 교육과정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연간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필요시 특정 교과 시수를 늘리거나, 관련 교과 간 내용을 재구성하거나, 부족할 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다. 비록 여전히 현장에서는 시수 부족, 담당 교사의 업무량 증가, 예술 강사와의 소통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하지만[1][14], 서울시의 강력한 ‘시행령’을 통해 교육과정 내에 협종을 안착시켰다.

2.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

협종 운영을 위해 서울시 교육청은 협종 운영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예술자문단을 위촉하여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자문 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수업용 교재 개발은 물론 교육지원청별 우수사례 워크숍 및 교사 연수를 진행하였고, 연습실 공연장 구축 등 협종 운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였다[15]. 특히 2019년부터 서울시 교육청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중)과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고, 협종을 위탁 운영함으로써, 예술 전문성을 향상시켰다(표 1).

한예중 산학협력단은 단위 학교에 필요한 예술 강사 인력풀을 지원하여, 예술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였고, 담당 교사의 업무량을 감소시켰다. 협종 페스티벌을 마련하여 뮤지컬 연극 등 발표회를 기획하고, ‘교복입은 예술가’ 홈페이지를 제작·운영하였다. 또한 영화제를 개최하여 협종에서 제작한 영화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였다. 특히 기존의 영화제와 달리 창의적인 상들을 만들어 학생들의 적극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고, ‘교복입은 예술가’ 홈페이지 내 아카이브(archive)를 구축하여 활발하게 활동 내용을 기록 및 공유하고 있었다[4]. 즉, 한예중은 협종 수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표 1.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 협종 운영 프로그램 위탁 용역비[16]

Table 1. Consignment service fee for the cooperative integrated arts activities program of the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Group of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16]

| 년도 | 용역비(원) |
|----------------|---------------|
| 2020.1-2020.12 | 3,205,414,900 |
| 2021.1-2021.12 | 88,821,000 |
| 2022.1-2022.12 | 3,606,213,510 |

서울시 교육청은 협종이 학교별 운영 방법, 내용, 효과 등에서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인지하고, 학교급별 학생의 성장 특징에 따른 예술교육의 부채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 뮤지컬, 연극, 영화 영역별 학교급별 성취기준을 마련하였다[5]. 특히 새롭게 마련된 성취기준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 교육과정의 틀(성격, 목표,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협종 영역별 성취기준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수준은 물론 학생들의 성장 발달과 타 교과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제작되었기에 교과 내 활용도가 매우 높다. 이 외에도 서울시 교육청은 지속적으로 운영학교 컨설팅,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지원 등 끊임없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17].

표 2. 뮤지컬 교육과정의 초등 5-6학년 성취기준[5]
 Table 2. Achievement Criteria for 5-6th grades in the Musical Curriculum[6]

| 영역 | 성취기준 |
|--------------|---|
| 뮤지컬의 이해 | [6뮤지컬01-01] 종합 예술의 특성을 지닌 뮤지컬과 다른 예술 장르의 차이점을 탐구한다. [6뮤지컬01-02] 뮤지컬의 구성 요소(극본, 연기, 음악, 안무, 무대기 술 등)를 체험하고 이해한다. |
| 뮤지컬의 제작 | [6뮤지컬02-01] 주제에 어울리는 이야기를 극의 형식으로 구성하여 말과 신체를 통해 표현한다. [6뮤지컬02-02] 인물의 상황과 감정, 극의 분위기를 등을 어울리는 음악과 신체 동작으로 표현한다. [6뮤지컬02-03] 작품의 내용, 구성요소와 조화를 이루는 시각적 요소를 창의적으로 표현하여 공연한다. |
| 뮤지컬의 감상 및 진로 | [6뮤지컬03-01] 여러 유형의 뮤지컬 작품을 감상하며 문화를 향유하는 태도를 기른다. [6뮤지컬03-02] 뮤지컬을 통해 다양한 직업 탐색의 기회를 경험한다. |

3. 예술의 다양성이 포함된 참여적 프로그램

서울시 교육청은 협종 활동에서 “모든 학생들이 기획, 연출, 대본, 연기, 노래, 안무, 방송, 조명, 음향, 촬영, 편집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교내·외 축제 및 발표회 등을 통해 학생들이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서울시 교육과정에 명시하였다[2]. 나아가 서울시 교육청은 기존의 뮤지컬, 연극, 영화 외 예술의 다양성을 확대하여 힙합과 밴드 중심의 뮤지컬, 애니메이션 영화 등 협종에서 실시할 수 있는 분야를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다[8].

예술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협종은 ‘공동 창작’이라는 목표를 지향하는[1][7] 참여적 프로그램이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학생들은 자신의 개성과 특징을 반영한 다양한 예술 활동을 동료들과 함께 창작(creation)하고, 서로 소통하며(connection), 협력(collaboration)하여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고, 이를 공유하여 사회적 관계성으로 순환(circulation)하는 참여적 학습(participatory learning)을 경험할 수 있다. 이일경, 임병노는 대면 현장에서 온라인 현장으로 확대된 블렌디드 환경에서 중학교 학생들의 뮤지컬 수업 사례를 통해 참여적 학습에 대한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18].

III. 협력종합예술활동의 지역 적용 방안 고찰

1. ‘시행령’ 과 같은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

각 시도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창의·인성 개발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고 있다[19]. 하지만 각 지역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교예술교육은 각 시·도 교육청 및 단위 학교의 교원 및 교직원의 철학, 열정과 의지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모든 학생들이 학교예술교육의 수혜를 받기보다, 문화소외지역 학교, 프로그램에 선정된 학교 및 학생 등 특정한 조건의 학생들만 예술교육을 경험하기도 한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예술 활동이 방과 후 혹은 동아리 활동 등에서 운영되다 보니 교사의 관심 수준에서도 차이가 있으며, 학생들 역시 관심 있는 학생들만 학교예술교육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의 ‘시행령’과 같은 명확한 정책을 통해 학생들 모두가 조건 없이 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협종이 추구하는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을 지역에서 실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인적 및 물적 자원 마련

협종과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민간(民間), 정부, 학교가 지역 교육의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21]. 또한 예산 편성 및 관리, 후원 및 기부, 지역 내 타 기관과 파트너쉽 구축, 자원봉사자 모집 등 교육청이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마련하면 학교는 적극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생들이 의

미 있는 예술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나아가 인적 및 물적 지원 외에도 교사, 관리자, 학생과 학부모, 예술 강사, 시·도 교육지원청 등 협종의 기획과 운영에 관련한 구성원들의 긴밀한 협조와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5].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서울시 교육청은 한예종과 같은 예술 전문대학과 MOU를 체결하고, 함께 협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적 및 물적 재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예술교육의 질적 성장도 도모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협종이 타 지역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역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 수업에 필요한 자료 지원, 교재 개발 및 보급, 교사 연수는 물론 지역 내 전문 예술 학교 및 단체와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지역 내 전문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상황에 맞는 예술 강사 교육 및 배치 방법을 고려하여 학교 현장에 질 좋은 예술 강사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양질의 예술교육을 통한 창의·인성, 자신감, 만족감 등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3. 학생들의 다양성이 반영된 예술교육

해마다 시·도 교육청에서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을 설정하고 공교육에서 학생들이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운영하고 있다[19]. 하지만 학교가 속한 지역 특징을 반영한 예술교육보다는 ‘1인 1악기’ 프로그램 등 전국적으로 유행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향이 있다. 비록 최근에는 ‘1인 1악기’ 프로그램이 학생의 다양성을 인정하여 ‘1인 1예’의 표현으로 바뀌어 진행되기도 하였지만, 연계성 없는 예술교육 및 학생의 성향과 적성을 반영하지 않는 동일한 예술교육을 운영하는 데 있어 아쉬움이 있다.

협종은 일부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학교예술교육 프로그램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으며, 공동 창작 활동이라는 점도 타 예술 활동과 유사점이 있다[1][19]. 하지만 협종의 경우 예술을 음악, 미술 등으로 구분하기보다 예술에 대한 융합적 접근으로 시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모든 학생들이 단일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표를 위한 다양한 예술 경험의 선택권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예술교육 활동과 차별성이 있다. 따라서 학교 공동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공통된 목표를 통한 다양성이 확보된 예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협력적 인성, 공동체 의식 등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진로 및 적성, 자아 탐색 과정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데 있어 문제 해결 능력, 협동심, 창의성, 자신감 등을 기를 수 있다.

4. 결과물 공유를 통한 사회적 확산

협종은 학생들의 문화 예술 경험을 외부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2년 당시 제5회 영화제를 운영하였으며, 뮤지컬 역시 협종 페스티벌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다[4]. 협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예술 결과물을 제한된 교내에서 소비하기보다 외부로 공유함으로써 자신감, 소속감, 협동 정신 등을 사회와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서울 외 타 지역에서 협종을 적용하기 위해 학생들의 작품을 공유할 수 있는 공유 확산 정책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오랜 시간 준비하였던 작품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거나 혹은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하여 일회성의 페스티벌이 아닌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추억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서울시에서는 2017년에 협종 진행 후 자체적으로 협종 운영 실태와 효과성을 분석하였고, 2019년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중학교 협종이 미래 학생 역량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실시하였다[3]. 또한 2021년에도 위탁연구로 협종 운영 내실화를 위한 학교급별·영역별 성취기준 개발 연구를 실시하였다[5]. 즉, 서울시 교육청은 2017년 이후 정책적으로 일관성 있게 협종을 진행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부족한 점들을 수정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특히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들은 협종이 성공적인 학교예술교육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타 지역 내 협종을 운영하기 위해 단순히 프로그램만 진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정책을 실시하고, 이를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다양한

방법으로 협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지역 내 협종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 지역 학교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과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IV. 결 론

‘교복입은 예술가’는 협종의 또 다른 이름으로 누구나 예술을 경험하고,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시대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4]. 이러한 이름 역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공모를 통해 지어준 이름으로서, 협종은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교복입은 예술가’의 이름에서처럼 협종은 학교예술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물론 책무성을 가지게 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협종의 성공 전략을 분석하고, 이를 타 지역 공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였다. 협종은 학교 교육과정 내 운영됨으로써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을 실천하고 있었으며,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단일 예술 활동이 아닌 다양성이 확보된 참여형 예술교육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다른 지역에 적용하기 위해 첫째, 시행령과 같은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 둘째,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인적 및 물적 지원, 셋째, 학생들의 다양성이 반영된 예술교육 실시, 넷째, 예술 결과물을 공유하는 사회적 확산 정책, 다섯째,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였다.

2015년 서울시에서 교사와 학생을 포함한 3,5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성교육 추진방안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86.4%가 인성 교육을 문화예술교육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20]. 따라서 미래 교육의 핵심역량으로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위해 서울시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된 협종을 다른 지역에서도 적용한다면, 이는 바람직한 사회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수의 프로그램도 협종과 같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예술교육이 아닌 학생의 관심과 적성에 맞는 예술교육을 동일한 목표로 함께 협동하여 진행한다는 점에서 협종은 다른 예술교육 활동과 다른 의미를 가진다. 특히 음악, 미술과 함께 문학예술 등 다양한 학문을 통합하여 학생의 개성을 반영하여, 학생이 원하는 예술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예술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예술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함양하고자 한다면 이제는 어떠한 예술교육을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적 향상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 학교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협종에 대한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타 지역 내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데 그 의의를 둔다.

References

- [1] Y. Kim, "Analysis of Operational Status and Effectiveness of Cooperative Integrated Arts Activities in Middle School,"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Vol. 15, No. 4, pp. 19-36, 2017.
- [2]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Seoul Metropolitan Guidelines for Middle School Curriculum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Proclamation of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17-4, March 2017.
- [3] H. Hong, H. Lee, B. Min, J. You, and D. Chung,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ooperative Arts Activities in Middle School on Future Student Competencies," *Seoul Education Research & Information Institute*, #2019-38, February 2020.
- [4] An Artist in School Uniform, <https://young-artists.kr/page.php?pgid=about1>.
- [5] C. Han, Y. Lim, B. Min, B. Cho, D. Park, E. Choi, C. Won, and D. Chung,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chievement Standards by School Level and Area to Improve the Operation of Cooperative Arts Activities," *Seoul Education Research & Information Institute*, #2021-28, 2021.
- [6] J. You, and S. Kim,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Film Instruction on the Core Competencies of Students in Middle School Cooperative Integrated Arts Activiti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0, No. 12, pp. 917-943, 2020. <http://dx.doi.org/10.22251/jlcci.2020.20.12.917>.
- [7] Y. Han, "A Study on the Effects of Collaborative Creation of Theatre on Community Competency of Middle School Students: Focusing on Case of Cooperative Integrated Arts Activities," *The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Vol. 18, No. 4, pp. 325-351, 2020.
- [8]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Mid-to Long-term Development Plan for Pre-college Arts Education: 2021-2025,"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21-28, 2021.
- [9] L. O'Farrell, "Final Report,"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pp. 1-28, 2010.
- [10]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International Exchange," <http://eng.arte.or.kr/ie/uwc>.
- [11] I. Kim, N. Suh, M. Kim, and H. Shin, "Constructing Sustainable Development for Arts Education Index (SAEI): A Study based on the Seoul Agenda and Its Policy Implications,"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tudies*, Vol. 15, No. 4, pp. 1-25, 2020. <http://dx.doi.org/10.15815/kjcaes.2020.15.4.1>.
- [12] United Nations,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
- [13] Ministry of Education, "The National Curriculum for the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Proclama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2015-74 [Annex 1], 2015.
- [14] J. Kang, "An Artist in a School Uniform, Embracing Art at Yongsan High School," *Seoul Education*, Vol. 248, 2022.
- [15] Y. Lim, "Understanding Cooperative Arts Activities in Middle School," *Seoul Education*, Vol. 227, 2017.
- [16] Industry 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of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http://www.kartssanhak.kr/60>.
- [17] M. Back, "2022 Seoul Education Policy Institute Annual Report," *Seoul Education Research & Information Institute*, #2023-4, February 2020.
- [18] L. Lee, and B. Lim, "A Case Study of 'Participatory Learning'-based Middle School Musical Theatre Education in a Blended Learning Environment,"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tudies*, Vol. 17, No. 2, pp. 47-78, April 2022. <http://dx.doi.org/10.15815/kjcaes.2022.17.2.47>.
- [19] School Arts Education Portal, <https://artsedu.kice.re.kr/home/kor/board.do?menuPos=23>.
- [20]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nnounces Plans for Cooperative Arts Activities in Middle Schools," September 2016.
- [21] G.M. Kim, "Cooperative Comprehensive Arts Activities," *Policy Focus*, Vol. 157, pp. 39-41, November 2018.

※ 이 연구결과물은 2021학년도 경남대학교
신진교수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